

추수 감사주일 예배

THE WORSHIP SERVICE OF THANKSGIVING SUNDAY

주후 2020년 11월 22일 오전 10시

인도: 김일선 목사

*입례 찬양 Opening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찬 송 Hymn	20 장 “다 감사드리세” (새 66)	다같이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64 번 감사절 (Thanksgiving) 1	다같이
*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송 영 Gloria Patri	555 장 “세번 아멘”	다같이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다같이
기 도 Prayer of Intercession		권영수 장로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하박국 (Habakkuk) 3:17-19	이기울 집사
온라인찬양 Online Anthem	“임하소서”	찬양대
영어 설교 English Sermon	“ I Will Walk by Faith ” Will Purushotham	
한어 설교 Korean Sermon	“ 다시 만나는 교회 (2) – 감사함으로 ” 김일선 목사	
(Gathering Together Again – With Thanksgiving)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봉 헌 Offerings	(특별연주: 고희정 집사)	다같이
*송 영 Doxology	353 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새 317) 1 절	다같이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인도자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찬 송 Hymn	524 장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새 222)	다같이
*축 도 Benediction		김일선 목사

*표가 있는 순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고백의 기도

(각자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졌다”는 사도 바울의 지적처럼,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치우쳐서,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 보다는, 세상적인 가치를 좇으며,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집중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토록 책망하셨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또한 우리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계속해서 머뭇거리며, 죄 가운데 머물렀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제는 거짓되고 위선적인 모습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참되고 진실한 신앙을 바르게 세워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올려드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롬 12:1, 골 3:17)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나는 여호와의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한글개역 **합3:18**)

“Yet I will rejoice in the LORD, I will be joyful in God my Savior.” (NIV **Habakkuk 3:18**)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날짜	11/22 (주일)	11/23 (월)	11/24 (화)	11/25 (수)	11/26 (목)	11/27 (금)	11/28 (토)
	대상17	대상18	대상19,20	대상21	대상22	대상23	대상24,25
본문	약4 윤1 눅6	약5 윤2 눅7	벧전1 윤3 눅8	벧전2 윤4 눅9	벧전3 미1 눅10	벧전4 미2 눅11	벧전5 미3 눅12

수/요/성경/공부 토/요/새벽/기도/회

수요 성경공부 (11/25 오후7:30) “그들에게 행하기로 한 것을” (민33:1-4, 50-56)

토요 새벽기도회 (11/28 오전6:30)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나” (시16:1-11)

지난 주일(11/15) 말씀

“다시 만나는 교회 (1) – 사귀의 관계” (요일 1:1-10)

하나님은 사귀의 관계인 삼위일체(Trinity)로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우리도 사귀의 관계로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관계로부터 출발하고, 관계를 통해 성장하며, 또한 관계를 통해 연단도 받고 변화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귀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귀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같은 사귀의 관계인 코이노니아(Koinonia)를 회복하기 위해, 1)첫째,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는(With Christ) 관계로부터 출발해야 하고, 2) 둘째, 우리는 어두움이 아닌, 진리의 빛 되신 주님을 함께 향하는(Toward Christ) 관계를 세워야 하며, 3) 셋째, 우리에게 죄사함과 용서를 허락하시는 주님 안에 (In Christ) 우리는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어서, 관계를 회복하고, 화해하는 것조차도, 항상 우리 중심으로 생각하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사람이 굽히고 들어가거나, (또는)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면 저절로 관계가 회복되고 화해가 이루어 진다고 여기지만, 참된 관계의 회복과 화해는 어느 한 사람만의 변화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변화되는 것이어야 하며, (또한) 모두가 함께 변화되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며,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바로 복음의 능력이며, 또한 참된 사귀의 관계인 코이노니아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만나는 교회’를 사모하며, 우리도 ‘주님과 함께(With Christ), 주님을 향하여(Toward Christ), 그리고 주님 안에서(In Christ) 참된 사귀의 관계(Koinonia)를, 회복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메/모